

기후장관 “반도체 클러스터 LNG발전 확대 추진”

전기로 차등화 ‘산업용 지역 요금제’ 내주 공개 7개 댐 신설 재검토 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관련 쟁점을 짚으며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일부 늘어날 텐데 가스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말했다.

현행 11차 전기본에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

하는 계획이 담겼다.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퇴출’ 수순이었던 것인데 최근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LNG 발전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LNG 발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안정적이고 원자력 발전보다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NG 열병합 발전의 경우 전기와 열(스팀)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12차 전기본은 다음달까지 토론회 등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등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반복해 주문하는 것과 관련해 “(평가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산단 조성 때문에) 환경피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사계절 동안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라 기간을 단축하는 것 자체가 평가를 약화한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제도의 공식 명칭을 ‘산업용 지역 요금제’로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주택용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 정부안은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부지도 확정된 원전 외에 원전을 더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했다.

또 기후부가 검토 중인 ‘7개 댐 신설’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는 극한호우와 극한가뭄 등에 대응하겠다고 댐을 신설할 14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7개 댐 신설 방침은 철회됐고 나머지 댐은 기후부가 재검토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오른쪽 두번째),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왼쪽 두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열린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오른쪽 두번째),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왼쪽 두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20일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오후 2시 20분간 전국서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훈련은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사이렌이 1분간 울리고,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다음 포털 검색을 이용하거나 ‘안전다짐돌’,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피소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통제가 해제된다. 훈련은 오후 2시20분 경보 해제로 종료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피소 찾기, 방독면 착용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병행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적인 참여훈련이 실시된다.

시설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훈련상황을 알리고, 종사자와 이용객은 건물 지하 공간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훈련에 앞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대피로와 대피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8월 폭염에 대비해 식수 준비 등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피가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훈련에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지하철·항공기·선박·병원 등은 정상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객은 운행 중 안내방송을 통해 훈련상황과 비상시 행동요령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인 만큼 하나의 안전공동체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와 비상시 행동요령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전남광주 곳곳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

민행배 시장 “정의를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잘사는 전남광주로”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남구 빛고을문화관에서 추모식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18일 전남광주에서 추모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18일 오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시동 1층에서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송형곤 시의회 의장, 김대중 교육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김선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부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추모식은 헌화와 추모사, 문안나 소프라노의 추모 공연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추모식 이후 참석자들은 컨벤션에서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도 함께했다. 김정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의 개막 인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커팅한 테이프에 추모와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는 기록 세리머니를 펼쳤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30분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 주관으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년 기념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민행배 시장, 문기전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장, 배기진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뜻을 전하고, 추모식에 참석한 시민들과 흥선희 소프라노의 추모 노래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제창했다.

추모식이 끝난 오후 7시부터는 관바로 추모 연극인 ‘사형수 김대중’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1980년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이 체포된 순간부터 1982년 12월 미국 망명길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옥중생활과 고뇌를 무대 위에 담으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정신을 조명했다.

문기전 추모사업회장은 “사형수로서

겪은 고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성찰과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인간 김대중’의 모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행동하는 양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행배 특별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차별을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야 할 정의와 평등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지방자치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이어 “그토록 바라셨던 동등한 기회가 전남광주의 가능성을 깨우고 있다”며 “정의를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잘사는 전남광주, 압도적 성장이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전남광주를 320만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성정’과 ‘포용’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면서 “도약을 이끄는 성장과 온기를 나누는 포용을 두 축으로 삼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1면 ‘김민석 대표’서 계속

민행배 시장은 “대표님과 안도결 위원장님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 같다. 80년간 겪었던 서러운 역사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5국 3특, 특히 지역

주도 성장의 중요한 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됐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정당과의 만남을 통해 “중앙을 현지 정치로 바꾸겠다”며 “주에 이들 이상은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이동대표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와서 풀로 있으면서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려 하고, 필요하면 생중계할 수도 있다”며 “지방 현지 정치를 신중론 의원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함평출신 김성수·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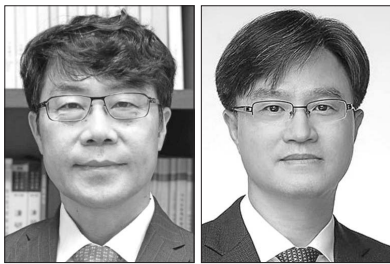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약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평 출신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약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가운데,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까지 시작되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하게 됐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함평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



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 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임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특별시, 고독사 위험자 2708명 발굴

1인 가구 3만9000명 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까지 4개월간 22개 시·군 1인 가구 3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기획조사’를 해 고독사 위험자 2708명을 발굴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1341명(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장년층 1217명(45%), 청년층 150명(5.5%)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 정도별로는 저위험군이 2257명(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위

험군은 418명(15.4%), 고위험군은 33명(1.2%)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재난,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 가운데 1개 이상이 확인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굴된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와 위험 정도를 고려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정기적 안부 확인과 함께 청년층은 마음 회복과 일상 회복, 중장년층은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경제적 자립, 노년층은 돌봄 연계와 사회참여, 안전 확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1면 ‘국립의대’서 계속

대학 간 협상이 멈춘 사이 지역 정치권의 유치전은 더욱 거세졌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200여명은 이날 서울 청와대 앞에서 순천대 의대와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동부권 일괄 유치를 촉구했다.

반면 동부권 내부에서도 대응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 국립의대 동부권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의 순천 동시 배치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고집해 통합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도민추진위는 “통합이 무너지면 순천이 의대와 대학병원을 모두 얻는 것이

아니라 국립의대 신설 기회 자체를 잃는다”며 “동부권도 서부권도 모두 잃는 결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이미 예견됐는데도 대학과 행정의 합의 불발에 대비한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뒤 대학 총장이나 정치인 몇 명이 책임진다고 해도 시라진을 열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동부권 일괄 유치를 촉구했다.”

반면 동부권 내부에서도 대응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 국립의대 동부권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의 순천 동시 배치만을 유일한 해법으로 고집해 통합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도민추진위는 “통합이 무너지면 순천이 의대와 대학병원을 모두 얻는 것이